



## 한빛장로교회 “소명이 부여되면, 마른 나무가 싹난 지팡이로”

2025년 5월 18일(주일), 한빛장로교회(구경모 목사)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구경모 목사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싹난 지팡이처럼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구 목사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위나 주장을 통해 제사장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라와 트우벤의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다. 우리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왜 너희 둘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라고 대적했다.”

“나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그렇게 고상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늘 성전 기물이나 들고 다니고 닦고 나르고, 성전 기둥을 나르고, 물 떠나르고 불 피우고 소 잡고, 양 잡고, 내 몸에 피다 묻히고, 먼지를 다 뒤집어쓰며 외과 공사나 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상해 보였던 것이다.”



5월 18일(주일), 한빛장로교회(구경모 목사)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 언약궤 안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상징

그는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돌판, 만나, 싹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돌판, 만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증거물이다. 두 돌판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연상한다. 돌판을 모세가 들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던져 버린다. 그것은 그들에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

의 사랑이었다. 성질 나서 던진 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대면, 율법에 의해서 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 돼 버린다. 그래서 그 거를 깨버리는 것이다. 만나를 볼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구 나를 성찰하는 것이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마찬 가지이다.”

그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는 법궤를 속죄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임직의 의미와 연결시켰다.

“하나님의 죄 없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그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그 피 뿌림을 통해 사함을 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마치 옛 언약의 속죄소에 어린양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안개 처럼 사라질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그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며, “마른 지팡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일시적인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무의 미한 인생, 그게 마른 지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부여되면 마른 지팡이가 생명으로 싹난 지팡이가 된다”고 말했다.

임직식에서는, 김상진 장로 안상현 장로가 원로 장로로 추대되었고, 김계용, 윌리엄 유, 장남식이 장로로, 김민경, 박선우, 신형범, 이광영이 안수 집사로, 김혜인, 박성원, 임혜신, 윤은경, 유영애, 장성은이 권사로 임직했다.

김상현 목사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 딱 한 가지지만 권면을 드리고자 한다. 비전으로 하나가 되면 된다. 모든 일에 결손하십시오. 온유하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에게 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매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했고, 이인규 목사(기독일보 대표)는 “한빛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으로 LA와 열방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사했다. 주디 한 기자

## “주일 예배를 위해 14년을 달렸다”

### → 1면 기사(‘마라톤 목사’ 별명...)에 이어서

참가비는 1인당 100달러에 달했고, 참가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대회 수익은 약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한 행사였기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고 송 목사는 회고했다.

이에 그는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일 마라톤 유감’이라는 칼럼을 한 신문에 기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러 교계 지도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후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마라톤 날짜 변경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송 목사는 종무 역할을 맡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협조를 구했다.

결국 2008년, LA 국제 마라톤의 일정은 만장일치로 주일에서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5월 마지막 월요

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였다. 5월의 더운 날씨 덕에 참가자 수가 1만 2천 명으로 줄어들고, 탈진하는 참가자도 생기면서 다시 주일 개최에 대한 논의가 부활한 것.

이 때 한 은퇴한 백인 판사이자 장로가 나서서 중재안을 제안했다. 마라톤을 다시 주일에 개최하되, 코스를 조정하여 한인타운 지역은 통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마라톤 코스는 디저스 스타디움을 출발해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이어지는 루트로 변경되었고, 한인 교회들은 더 이상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의 별명인 ‘마라톤 목사’는 마라톤을 직접 뛴 것이 아니라, 마라톤 날짜 변경을 위해 14년 동안 ‘믿음의 마라톤’을 달렸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송 목사는 신앙의 가정에

서 자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처



과거 마라톤 날짜 변경 운동을 하는 송정명 목사. 언론인들에게 동침을 호소했다.

음 교회를 찾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쪽복음’ 성경 때문이었다. 그 성경이 갖고 싶었던 그는 친구의 말대로 네 번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 성경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 첫 걸음을 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주일학교 출석을 중단하였고, 이후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다.

군 복무 중 그는 우연히 근무지 근

선생님의 말에 주일학교 출석을 중단하였고, 이후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주일학교 출석을 중단하였고, 이후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다.

처의 군인 교회를 자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세례를 받았다. 이후 부산 MBC에서 성우로 근무하며 세속적인 삶을 이어가던 중, 목사였던 매형과 누나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에 마음을 돌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두 주간 사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삼촌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며,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59년 동안 우리 아버님이 해 놓은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삼촌이 이루어 놓은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할 인생 길이라 그러면 좀 더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을 했다.”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개강 부흥회에서 김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본격적인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했다.

##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월)~10(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 아이티 소망학교에 뿌린 씨앗, 분명한 열매 맺을 것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 위한 연합선교 음악회, 월드쉐어 USA 주관으로 미주평안교회서 개최

아이티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연합 선교 음악회가 지난 5월 18일(주일) 오후 6시 30분에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순절 나눔의 금식 캠페인’ 종료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사순절 기간, 월드쉐어USA는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소망학교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망인과 전쟁 고아들, 전쟁난민 사역을 지원을 위해, 하루 한끼 금식 하며 그 한끼 식사 비용을 모금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나침반교회, 예은교회, 가스펠교회 더섬기는교회 LA 시티교회,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예수로 교회, 등 여러 교회와 무궁화합창단에서 동참하여 수리남, 도미니카, 우크라이나에서 전도축제, 성경공부, 마을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김정호 목사(가스펠교회) 특별 찬양, 괴건섭 목사(예은교회, WS후원이사장) 설



아이티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연합 선교 음악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기독일보

교, 송정명 목사(지도위원장, 성시화 대표) 격려사, 최학량 목사(지도위원, 미주한인 군목회장)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축사, 신명균 목사(연세 아카데미 부원장)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곽건섭 목사는, “구제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며, 대학 시절 찬송가〈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작곡한 교수님께서 “한국교회가 실제 삶 속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다면, 그 찬송가로 설교를 대신했다.

송정명 목사는 “14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가 된다. 열악하기 그지

없던 조선 땅에 건너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고 병원을 세워주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며, “140여년 전에 조선 땅에 씨앗을 뿌린 그들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듯, 아이티에도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양경선 목사(홍보이사, 샘ollen교회)의 사회로 열린 2부 음악회는 월드쉐어 USA 주사랑 여성 합창단(지휘 문혜원, 반주 김현아) ‘주 함께 살리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LA 남성 선교 합창단(지휘 원영진, 반주 오지혜) ‘은혜 아니면’, ‘우리 주의 성령이’, 하나콰이어(지휘 김문현, 반

주 임희경) ‘주는 포도나무’,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LACS(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단장 문혜원, 반주 윤경미) ‘웃 자락에서 전해진 사랑’,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로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음악회는 월드쉐어 USA가 주관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 다민족 연합 기도운동, 미주한인군목회, 기독일보,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크리스천 신문, 우남회가 후원하고, 예은교회, 나침반 교회, 코니스톤교회를 비롯해 18개 교회가 협력했다.

아이티 서남부 프티트루드니프(Petit-Trou-de-Nippes)에 1973년

세워진 아이티 소망학교(교장 다니엘 조셉 목사)는 2021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으나 2023년 강태광 목사의 저서 판매 수익금으로 교실 1동을 건축했고, 전체 교실과 예배당을 건축 준비 중이다.

월드쉐어 USA는 터키 지진 구호 지원, 가자 지원 분쟁 희생자 구호 지원 등에 참가했으며, 수리남 빈민 아동, 아이티 지진 피해 아동, 도미니카 빈민 아동,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 아동을 돕고, 절대 빈곤 지역 학교를 통해 학원 선교를 협력하고 있다.

후원문의: 월드쉐어USA 323-578-7933,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 김귀보 목사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기독일보 주관, 6/9,10(월,화)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자 목회 사역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이에 기독일보에서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인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를 초청해,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6월 9,10일(월,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개최한다.

김 목사에 따르면, 내러티브 설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게 하며, 성도들의 삶을 깊이 있게 터치해, 말씀으로 살아 가게 하는 유익을 지닌다.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던 입체적 사건이 평면화되었고, 따라서 현재의 독자는 원래의 청자가 되고 있던 상황,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가



## 시니어가 교회를 살린다…시니어 사역 세미나

6월 10일, 헐러톤 장로교회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신앙 및 사역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미주 한인교회에 시니어 사역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오는 6월 10일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시니어 사역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시니어를 단순한 사역의 수혜자가 아닌 동역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CPU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며, 헐러톤 장로교회에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뿐 아니라 시니어,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이들로, 등록자 200명까지는 점심과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에는 사역의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된다. CPU 평생교육원이 올해 1~3월에 걸쳐 진행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신앙 및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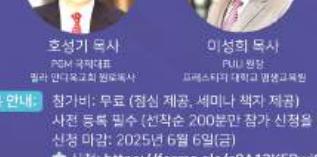
###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사역의 해답을 찾다.

일시: 2025년 6월 10일 (화) 오전 9:00~오후 4:00

장소: 헐러톤 장로교회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강사: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델피아 목회자 원로목사



이성희 목사  
FNU 원장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승봉일 목사  
한인기독교총연합회 목사  
시니어 평생교육원

등록 안내: 청기비: 무료 (점심 제공, 세미나 책자 제공)

사전 등록 필수 (전작년 200분만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마감: 2025년 6월 6일(금)

신청: <https://forms.gle/c9A13KFDwjCZnFr7>

문의: 활성민 목사 | [lifelonghwang@pts.edu](mailto:lifelonghwang@pts.edu) | 1-562-536-0128 참가신청

주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Lifelong Institute

제2회 시니어 세미나가 6월 10일(화) 오전 9시 헐러톤 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현황 조사’의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다. 이 조사는 시니어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역 참여도, 소명의식, 미래 사역 기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설문이다.

호성기 목사(PGM 국제대표)의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 강의와 이성희 목장의 조사 결과 발표, 송병일 목사(덴버 한인기독교회)의 현장 사례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참석자들이 실제로 시니어 사역에 대해 나누고 정리할 수 있도록 소그룹 토의 시간도 마련된다.

한국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원금 소장의 영상 메시지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CPU 평생교육원 이성희 원장은

“이제는 시니어가 교회를 세우는 시대다. 1차 세미나가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면, 2차는 방향성과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했다. 김선경 기자

문의: [lifelonghwang@pts.edu](mailto:lifelonghwang@pts.edu) / 562-536-0128 (활성민 목사)

## HD은혜교회 6주년 창립 기념 및 취임 감사예배

HD은혜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비전 아래  
김의구 목사님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6/1(주일) 오후 4시

장소: HD은혜교회

설교: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담임목사: 김의구 / 김혜실 사모

EM Pastor/동시통역: Wayne Ueyehara

협동 전도사: 토마스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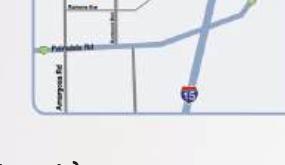
미디어/찬양인도: 승 철 목사

213.441.4833

[hdgrace.victorville@gmail.com](mailto:hdgrace.victorville@gmail.com)

HD 은혜교회 (High Desert Grace Church)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 ◎ 센터메디컬그룹

# 한인 시니어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진료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다



센터메디컬그룹 주치의 -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

미국에 정착한 한인 시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시니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정신 건강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실 중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 분야의 유능한 한인 전문의, 고제득 박사(정신과 전문의)의 합류입니다.

## 정신과 진료, 한인 시니어들에게 더 가까이

고 박사는 미국 내에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인 시니어 환자들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진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료하는 지역은 로렌하이츠, 풀러튼, 그리고 가든그로브 — 모두 한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정신과 진료는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낯설고, 두려움도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고제득 박사

고 박사는 오로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센터메디컬그룹의 문을 두드렸고, 그룹은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진료 외의 행정적 업무와 병원 운영의 부담은 그룹 차원에서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료 스케줄 관리, 마케팅, 스태프 채용, 보험 처리, 그리고 TMS(경두개 자가자극 치료)와 같은 고급 치료 옵션 제공까지 —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위해 존재하며,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경이 됩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한 병원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함 속에서도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전방위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이 죄 대표의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땅에서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병원은 단지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제이 죄 대표

## 함께하는 의료진, 그리고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현재 센터메디컬그룹은 내과, 가정의학과, 통증클리닉, 정신건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유능한 의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는 한인 시니어 환자들을 오래도록 돌봐온 경험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중심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s)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가주 전역 어디서든 한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 이것이 센터메디컬그룹이 그리는 다음 10년의 그림입니다.

**“한인 사회와 함께 숨 쉬는 의료,  
센터메디컬그룹은 오늘도 환자의  
삶을 중심에 둡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료진으로서의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직영점-센터메디컬클리닉〉  
센터메디컬 클리닉 풀러튼 직영점 (714) 519-3024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직영점 (714) 583-8569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 직영점 (626) 363-4661

〈의료진 참여 및 문의〉  
(760) 927-0927

[www.centeripa.com](http://www.centeripa.com)

센터메디컬그룹 TV



# 전국 기독교 543개 단체 연합,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대한민국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교계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연)와 전국 보수기독교 300개 단체연합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 대한민국 가치 분명히 인식  
신앙 가치 실제 정치에 반영한 인물

단체들은 전기총연 대표인 임영문 목사가 낭독한 지지선언문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가치의 붕괴"라며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사실상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별금지법 등은 결국 가정과 교회,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풋풀리즘"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들키에는 매력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음 세대를 혼란 속에 방치하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지금 물질이 목적이 된 사



정재웅 박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회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치인들이 '누가 더 나눠주느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로 인해 도덕과 책임,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 온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본질적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자유, 책임, 공동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선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 책임이 있다고 믿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김문수 후보는 오랜 노동운동 경험과 공직을 통한 행

정력, 무엇보다 신앙의 가치를 실제 정치에 반영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정의 위해 몸 바쳐 싸운 애국자  
신앙 가치관 바탕해 국가 비전 제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도 이날 함께 참석해 대표회장인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가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서기총은 "원칙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혁신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직한 일꾼, 김문수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로서의 혁신, 경

기도지사로서의 탁월한 행정 능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원칙 있는 정치 행보를 통해 오랜 세월 일관되게 국민을 섬겼다"며 "특히 그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왔으며, 시대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신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왔다"고 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 바쳐 싸워온 애국자"라며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경제, 교육, 저출산, 도덕적 붕괴 등의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강화 △공교육 정상화와 도덕적 교육 회복 △성실한 노동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정책 △기독교적 가치와 국민윤리에 기반한 사회 회복이라는 김 후보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싸운 보수 나라  
한국 번영과 통일 도구로 쓰임받을 것**

이날 이인제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 전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의 단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며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를 세우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다. 건국할 때부터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했고, 건국 직후 공산세력의 침략을 미국 등 자유진영과 함께 물리쳤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산업혁명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산층이 생겼고, 그 안에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꽂을 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 고결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김문수 후보가 맞서고 있다"며 "김 후보는 청년시절엔 사회·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를 보고 자유·보수주의에 귀의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뤄 북한 동포들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전국 각지의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과 목회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5본부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1면 "유엔 총회, 북한 인권"에 이어서]

강 씨는 "코로나19 봉쇄가 북한 당국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과 기회를 제공했다"며 "친구 중 세 명이 처형됐는데, 두 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이유였다.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다"고 증언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 기관인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 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가 즉각 해결돼야 한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김정숙·김국기·최준길 선교사를 즉각 석방해 달라"며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도 우려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너무 오랫동안 핵 위협에 가려져 왔지만, 인권 침해야말로 북한 정권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한다"며 "북한은 많은 면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현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무기 개발은 긴밀히 연계된 사안으로, 인권 침해가 중단되면 핵무기 개발로 중단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

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 세계 비핵화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석한 국가들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레그 스칼라투(Greg Scarlato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중동과 동유럽을 포함한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이란을 통해 중동 지역 테러단체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북한은 중동과 유럽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북한이 자행하

는 인권 침해"라고 했다. 30여 시민사회단체 글로벌연대를 대표하는 선 정(Sean Chung) 한보이스(HanVoice) 대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원동력"이라며 "북한 인권 침해와 국제평화 및 안보 위협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 총회 차원의 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유엔대표부는 이날 오후 유엔 회원국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 인권 글로벌연대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소통의장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사, 탈북민에 "쓰레기" 막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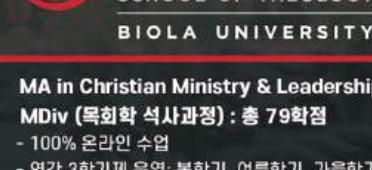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탈북민 증언 중 회의에 등장해 다음 순서로 발언한 주유엔 북한 김성 대사는 "유엔 본부에서 이런 회의가 소집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더 유감스러운 것은 부모와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지상의 쓰레기(scum of the earth)' 같은 자들을 증인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탈북민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성 대사는 "이런 인권 단체들은 인권 노예 집단이고, 오늘 회의는 이들이 비참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며 "유엔 인권 재판대에 앉아 할 진정한 범인은 '죄악의 인종 차별 국가, 인신매매의 왕국, 자살의 천국, 성 노예 범죄 국가'인 미국과 서방"이라고 주장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유엔 총회에서 '막말'을 투척한 북한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이 황당해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옹호하고 나섰다.

##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тен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북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 탈북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성경,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북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in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한국 기독교의 이정표"

유해석 교수,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서 특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현 목사, 이하 예장합동)가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담임 이규현 목사)에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로마서 1:16)라는 주제로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 첫 날에 유해석 교수가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 신학적 유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해석 교수는 한국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 선교사의 삶과 신앙과 그의 순교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조명했다.

유 교수는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를 복음 전래로 기념했지만, 그보다 앞서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실은 선교 신학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며 "토마스의 순교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교회 순교 전통의 시작이며 기독교 정신의 뿌리"라고 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무역선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그는 정식 통역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승선했으며, 조선의 백령도와 두문진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휴대한 그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군과의 충돌 끝에 순교했다. 당시 그는 끝까지 성경을 나누며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토마스는 통역관이 아니라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 입국했다"며 "그의 죽음은 한국 기독교 형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가져온 다섯 가지 선교 신학적 유산을 소개했다. ▲그가 전한 성경책을 통해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이 탄생했고 ▲그의 죽음은 존 로스(John Ross)가 최초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교회 순교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피스 존



유해석 교수 ©FIM국제선교회

(Griffith John) 등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이어져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토마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왔다가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에 의해 토마스의 순교는 왜곡되어 갔다"며 "또한 1980년대에는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 학자들의 연구도 있었다.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실증주의 역사관에 기초한다. 그러나 기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토마스 이후 3,179명의 선교사가 188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에 파송되었고, 이들은 헌신과 희생, 순교로 복음의 씨앗을 뿐렸다"며 "특히 남장로교가 담당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1920년대까지 67명의 선교사가 순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 속에서 기독교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 국가 중 OECD에 가입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며, 그 배경에는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 교육과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선교의 영향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가 진리이며, 한 국민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개신교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 "십대가 만난 예수님" 애니메이션 'Light of the World'

예수의 삶을 다룬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번 가을에 미국 극장에 개봉될 예정이다.

2D 애니메이션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은 사도 요한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9월 5일 전국 개봉을 목표로 한 이 영화는 Salvation Poem Project의 대표인 브레넌 맥퍼슨이 제작하고, 존 J. 세이퍼(슈퍼복)와 톰 뱅크로프트(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이 메가폰을 잡았다. 맥퍼슨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요한은 십자가에 처형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도였고, 아마도 가장 어렸을 것"이라며, 역사적 개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십대의 관점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작 팀은 3D 컴퓨터 그래픽 대신, 손으로 그린 2D 애니메이션을 택한 이유에 대해 예술적, 상징적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내린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세이퍼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90년대 디즈



"십대가 만난 예수님" 애니메이션 'Light of the World'

니 영화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이 지닌 불완전함도 마음에 들었다. 인간성을 반영하고, 그것이 복음의 더 큰 메시지와도 연결된다."

제작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영화에 담는 것을 어린 관객을 대상으로 한 영화에 표현하는 것이 특별한 과제였다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하고 "특정 장면들을 어린이에게 적합하도록 프레임화하기 위해 영화 기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요한은 장면에서 돌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모호하게 만든다. 세이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했다.

맥퍼슨과 세이퍼는 필요한 각색을 하면서도 끊임 없이 성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성경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적 사건에 더 큰 맥락과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허구정 장면도 영화에 추가했다. 신학자들이 대본과

주제를 검토에 참여했다.

세이퍼는 "핵심 사건, 신학, 메시지는 정확하다. 성경 외적인 요소들을 도입할 때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했다."라고 밝혔다. "세상의 빛"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국제적인 팀이 제작했다. 애니메이션은 아일랜드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은 부다페스트에서 녹음되었으며, 유럽 전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맥퍼슨은 최근 몇 년 동안 '더 초존', '하우스 오브 데이빗', '킹 오브 킹스' 등 신앙을 기반으로한 영화와 TV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화 개봉에 맞춰 틴데일 하우스에서는 어린이 사역 교육 과정과 인쇄 자료 세트를 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발팀은 신앙 기반 비디오 게임도 개발할 예정이다. "클레

이 파이어(Clay Fire)"라는 제목의

이 게임은 요한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판타지 우화로, 콘솔과 PC용으로 제작되었다.

자신 역시 게임을 즐긴다면, 맥퍼슨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기반 콘텐츠 제작에 열정적이지만, 그럴 기회나 자금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기에는 진정한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그 분야가 성장하도록 돋고 싶다."고 말했다.

"세상의 빛"은 여러 대륙에 걸쳐 380명 이상의 팀이 참여하여 거의 4년 만에 완성되었다. 세이퍼는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를 바라며, 솔직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다."

주디 한 기자

##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힙

**장점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 유럽복음연맹, 신임 교황 레오 14세 선출 축하 메시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N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유럽복음연맹(EEA)은 미국인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EA는 지난 13일(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267대 교황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가입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1982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사제로 서품을 받아 교황이 되기까지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EEA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다”며 “그의 신학적 유산,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여러 교파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교황 레오 14세가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따르다면 복음의 핵심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EEA로서 우리는 다른 기독교 전통의 기도자와 공동체와 우호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참된 영적 일치는 오직 성경적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유럽 전역의 국가 복음주의 연합인 EEA는 사회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른 기독교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 이주, 기후 위기, 생명 보호, 국가 간 평화 추구와 같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EEA는 “우리는 복음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선포돼,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신미셀 기자

## 온두라스 복음주의자들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자”



▲프렌테 에 프렌테 보도화면 캡처.

온두라스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선거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국민의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며 치유와 도덕적 회복으로 나아가자고 권유했다.

최근 카날5에서 방영된 인기 프로그램 ‘프렌테 아 프렌테’(FRENTE A FRENTE)에 출연한 저명한 교계 지도자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 및 종교계 인사들에게 영적 쇄신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테구시갈파목회자협회 회장인 마리오 바네가스(MARIO BANEAGAS) 목사는 온두라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용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서의 부재가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 우리는 수많은 문을 열어주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 어내는 그 강력한 단어를 잊었다. 이러한 미덕을 재발견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온두라스복음주의연합회 회장인 헤라르도 이리아스(GERARDO IRÍAS) 목사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정면 대결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단체, 즉 교회와 언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개는 온두라스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뎌 나왔다. 예비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싸고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와 군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CNE 내부의 분열과 상호 비난은 온두라스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목회자들은 요엘서 2장 12-13절을 인용해 “겸손을 받아들이고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온두라스 공적 생활의 도덕적·영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개와 용서가 국가적 화해의 기초이자 더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p><b>LA 백송교회</b>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p> <p><b>LA 씨티교회</b>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p> <p><b>나성영락교회</b>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p> <p><b>동양선교교회</b>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omcoffice1@gmail.com</p> <p><b>새 한우리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p> <p><b>올림픽장로교회</b>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c@gmail.com</p> <p><b>주님의영광교회</b>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한길교회</b>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p> <p><b>한마음제자교회</b>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b>가디나선교교회</b>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p>	<p><b>김성식</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처유 영성집회 어버이예배 주일 오후 2:00 월~금 오후 7:30 청년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오후 3:00</p> <p><b>김기섭</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후 8:0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후 6:00 대학성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p> <p><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꾸려우며 민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Elder 코너 T. (213)386-2233</p> <p><b>한천영</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10:30</p> <p><b>갈릴리선교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b>진유철</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김성원</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b>남가주새소망교회</b> 예배 성령으로 새롭게 받아 할리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p> <p><b>김일형</b>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p> <p><b>새생명오아시스교회</b>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p> <p><b>김재연</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p> <p><b>영생교회</b>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p> <p><b>서사라</b>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온기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p> <p><b>주님의 사랑 교회</b>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p> <p><b>김창섭</b>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브론킨(온라인)</p> <p><b>세계선교교회</b>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213) 388-1927 www.wmcla.com</p> <p><b>한현종</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p> <p><b>크렌셔장로교회</b>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1 T. (213) 407-1600</p> <p><b>기독일보</b>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b>국윤권</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후 11:30</p> <p><b>충현선교교회</b>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p> <p><b>이황영</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0:30 주말예배(화~금)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화~금) 오전 6:30 (화~금)</p> <p><b>남가주기쁨의교회</b>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com</p>
--	--

### 사우스 베이 지역

<p><b>진건호</b>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p> <p><b>이홍민</b>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유원동부 예배 오전 8:40</p> <p><b>이기현</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화~금)</p> <p><b>이황영</b>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화~금)</p>
--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번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후 6:00  
EM 성인예배 오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오후 8:00  
EM 3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encecgc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토요일) 오후 6:00  
GRC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오후 8:00  
EM 3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 1부예배 8:00am 주일 EM 예배 11:00am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 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 교육부예배 11:00am 주중 새벽예배(온라인) 5:30am

장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이우호 담임목사



LA RPC 모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지영환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남성수 담임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당목사



열반온누리교회

다임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c.org

김종규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6:00(토)



## 영 기독교 단체 “성공회 학교 새 지침, 진보 어젠다 세뇌”



영국성공회 소속 학교의 어린이들. ©영국성공회

영국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최근 개정한 학교 폭력 방지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의 인권단체 ‘크리스천 컨센션’(Christian Concern)은 해당 지침이 ‘진보적 어젠다 세뇌’를 조장하며 성경적 원칙을 진보적 이념으로 대체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성공회는 이를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성경적 틀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모두를 위한 번영(Flourishing for All)’이라는 새 지침서에 대해 크리스천 컨센션은 5월 13일 성명을 통해 “이 문서는 비판 이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연관된 이념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해당 지침이 인간의 번영을 ‘어린이들이 성적 및 성 정체성 등 보호받는 특성을 탐구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기독교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컨센션은 이 지침이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같은 세속적 이념에 기반하며, 기독교적 평등보다 교차성에 치우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들은 영국성공회 내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들어, 목사들이 LGBT 이념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미셀 기자

예를 들어, 베나드 랜달(Bernard Randall) 목사는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이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후 해고됐으며, 영국성공회는 그를 ‘위험 인물’로 낙인 찍었다고 했다. 또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성전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독교 교사가 성경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도 나왔다.

크리스천 컨센션은 “이 지침은 영국교회가 관리하는 4,500개 학교에서 성경적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증거”라며 “기독교적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 세속적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괴롭힘 방지’ 조항을 기독교 교사들이 성경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교사와 성직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국성공회는 “이 지침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성경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성과 연민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경적 이해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영국성공회 대변인은 “이 지침은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며 존엄성과 연민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다”며, 평등법(2010년 법률)에 따른 차별 방지 조항을 강조했다.

## 트럼프 “가자지구 자유지대로 만들 것”… 미국의 책임 강조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주에서 식수를 배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가자 주민들. ©세이브더칠드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을 ‘자유지대(free zone)’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카타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는 오랫동안 죽음과 파괴의 땅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자유지대로 만들어야 하며, 미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이 지역을 소유하고 점령하게 된다면 매우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파괴 상황을 이유로, 주민들을 일시 대피시키고 전면적인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자 주민 약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국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남아 있는 건물이 없는 상태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에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휴전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하마스의 완전 제거’를 전제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휴전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의 가자 재건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발언에서 하마스를 “쳐리해야 할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성식 담임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크리스천 비지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0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복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amp; 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여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차박 오방녀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F1 PLUMBING

## 동행과 상생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

GBC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가 협력하여 마련한 교회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이 제공된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이번 커리큘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정자 교수는 이 훈련 과정이 가정과 교회의 모든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필요함을 역설했다.

동행과 상생 본부의 사무국장인 이세영 목사는 이번 훈련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개척교회 사모님들, 교회 교육 디렉터나 부장 집사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교육과 관련된 장로님, 앙수집사님 등 교회 리더들을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이 목사는 “자녀를 두고 보고 있는 분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며

부모님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훈련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기

본 이해, 발달 단계별 복음 교육, 디아스포라 정체성, 공교육 가치와 기독교 가치의 차이, 가정 및 부모 교육, 어린이 예배와 성령 체험, 상담과 치유, 온라인 및 AI 자료 활용 등 부모와 교육 리더십 모두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세영 목사는 특히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읽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이 미국 문화를 잘 모른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입장을 언급하며,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있는 소통”이 현재 많이 무너져 있음을 지적했다.

본 훈련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온라인 미팅은 6월 1일 저녁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오



리엔테이션 및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주별 강의는 녹화 방송으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의  
온라인 시스템(Canvas)을 통해 제  
공된다.

등록 마감은 5월 28일까지이며,  
첫 온라인 미팅은 6월 1일 저  
녁에 시작된다. 등록은 동행과 상  
생 홈페이지 tntusa.org 또는 미  
주복음방송 전화 714-484-1190  
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이들 수가  
10명 미만인 작은 교회나 선교사  
에게는 50%에서 100%까지 장학  
혜택이 제공 된다. 신미셀 기자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滴滴하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텍스 크레딧: 최대 30%  
•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 구봉주 칼럼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잠시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에 잠시 이용되었다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었는데, 개발된지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인기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MBTI 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네 가지 지표—외향적인지/내향적인지(E/I), 감각적인지/직관적인지(S/N), 사고적인지/감정적인지(T/F), 판단위주인지/인식위주인지(J/P)—를 통해 총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Extravert)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이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회복하는 내향(Introvert)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Thinking)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해, 논리와 객관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느낌(Feling)을 중요시하여, 사람과 감정을 중심으로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참고로 글을 쓰는 본인은 ESTJ입니다. 외향적이고, 현실적이며, 논리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한 번 MBTI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부분 일리가 있음을 깨닫고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MBTI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 사람의 성격은 너무 다양하여, 단순히 8 가지 유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 그러한 8가지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여도, 8가지의 특성이 얼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비율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해와 다른 이를 이해하기에 무척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의 다른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으로 인한 쓸데없는 오해로 인해 빚어진 관계의 어려움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 처음부터 그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성격유형 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이를 조금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이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보다 미워하거나 용서하

지 못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MBTI가 아니라, 다른 이의 성품, 성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사랑과 돌봄을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정환경, 인생경험, 신앙경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상처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다 보니, 어느 사람을 이해하는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이리.”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는 겸손함과 배려심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화목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지고 채워진다면,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성숙의 지표는 관계의 원활함입니다. 아무쪼록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이를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방식들이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라는 성격유형 검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유행입니다. 사실, MBTI 이론은 1940년에 개발된 매우 오래된 이론입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1990년대에 아주

## 강준민 칼럼

## 나이듦의 아름다움은 간직된 젊음이 아니라, 살아낸 깊이에서 발견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림을 주는 노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주위에 나이가 깊어져 가는 어른들을 만납니다. 모두 할 수만 있으면 젊음을 간직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노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꾸고 고치면서 사십시오. 옛날에는 인생 2막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인생 3막을 넘어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기체목사는 인생 삼모작이 아니라 “인생 다모작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한기체, 『사도행전, 삶으로 읽다』, 토기장이, 29쪽). 인생 다모작 시대를 사는 우리는 가능한 가꾸어야 합니다. 지적, 관계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길 힘써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84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84세라는 말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 90세 이상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꾸며 살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젊음을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젊음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깊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이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고통을 껴

안고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를 껴안고 살 줄 아는 것이 삶의 예술입니다. 고통을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의 경계선에 사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평강과 고통의 경계선에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며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무덤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친구가 되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친한 친구로 여기며 살 줄 아는 것 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 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주 의식 할 수 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과 더불어 살면서 더욱 깊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 할 줄 아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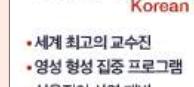
깊이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그것은 기쁨과 슬픔을 모두 통과한 성숙한 감정을 가꾸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칼 용은 “자신의 어두움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두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칼 용은 어둠 속에 감춰진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둠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환작가는 “밤은 낮보다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이철환, 『흔들리의 날들의 기도』, 생명의 말씀사, 112쪽).

깊이 있게 산다는 것은 실패와 배신을 견디며 키워낸 회복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게 산다는 것은 내면세계를 가꾸는 중에 깊은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성취를 넘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깊이 있는 삶입니다. 깊이 있게 산다는 것은 품격 있게 사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말과 행동에서 고운 마음과 존중할만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격이란 말과 행동에 예의와 배려가 스며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청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십시오.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어른들의 주름 속에 새겨진 기도와 눈물은 친란한 아름다움입니다.

##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설립 1970년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tbiola.edu](http://www.tbiola.edu) [admissions@tbiola.edu](mailto:admissions@tbiola.edu)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입학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환 박사 T(626)227-3454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http://www.aeu.edu) [info@aeu.edu](mailto:info@aeu.edu)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SINCE 1977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mailto:ks@mbts.edu)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的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주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오프라인 블랜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회화,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http://www.ptsa.edu) | 일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http://www.wmu.edu)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전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정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http://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mailto:info@evangelia.edu)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개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mailto:KEB@GS.EDU)

[WWW.GS.EDU](http://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ATEWAY SEMINARY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 가정의 달 특선

#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멜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멜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http://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김영한 칼럼

##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II)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당시 사회의 하류계층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류계층에게는 보다 인간적인 형벌이 적용되었다. 십자가형은 처형자를 맹수에게 던지는 대중오락과 비교 할 수 있으나, 짐승에게 찢기는 형은 대중적인 축제가 거행되는 특수한 때에 수행될 수 있으나, 십자가형은 어느 곳에서나 시행될 수 있는 일반적인 처형방법이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Seneca) 같은 지성인도 십자가형과 같은 고대사회의 처형방법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혐오하면서도 범죄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처형되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는 사도 바울의 말을 실감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러한 잔인한 형벌에 의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의 낫아지심과 대속적 죽으심의 사랑과 희생을 깨우쳐 준다.

## III.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겨 벗겨 눈에 띠는 장소, 네거리, 극장 안,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시킨다. 그럼으로써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의 내면에서도 최대의 수치를 느끼게 하였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고대세계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형은 처형한 자를 대부분 매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처참하게

평가되었다. 처형당한 자는 매장을 거절당하고 그의 시체는 맹수들과 시체를 뜯어 먹는 새들의 먹이로 주어졌던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당사자에게 완전한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주었다.

구약시대 모세도 “십자가형이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b). 그러나 모세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악한 풍습에 반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로 장사지내라고 명하고 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2-23).

시신(屍身)을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 놓으면 시신이 맹수들과 시체를 뜯어 먹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 훼손되기 때문에 처형된 자의 시신 보존을 위하여 그 날에 장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자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주신 땅을 성결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처럼 로마시대 하류 계층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처형당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낫아지심이요 겸허와 자기 비움의 모습, 인간 구

속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계속>

## 하늘바라기



© pexels.com

## 기다릴게 - 김은주

사랑할 수 있니?  
따라올 수 있니?  
감당할 수 있니?  
아마도 넌 어렵다 하겠지...

기다릴게  
많이 많이....

그때가 되면 넌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 수 있을 거야

## 강태광 칼럼

## 아름다운 마무리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고 설교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고 고인의 삶에 대해 부러움과 존경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나아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족들의 추모사 시간이 참 좋았다. 아버지와 남편을 보낸 슬픔을 누르며 담담히 토해내는 사랑과 존경의 고백은 큰 울림이 되었다. 고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고인이 참 잘 사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추모 예배의 클라이맥스는 남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은 김 교수님의 아내 김 권사님의 추모사였다. 권사님은 담담하게 장로님의 귀한 인생을 그려주셨다. 김 장로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마음에 담고 돌아왔다.

몇 주 전 어느 교회의 마지막 예배에 참석했다. 후임 목회자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며 교회를 정리한 것이다. 함께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기 좋았다.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며 계속 주님을 섬기기를

권면하였고,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을 축복하며 응원했다.

교회의 마지막 예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그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였다. 그들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싶다.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지혜가 보였다. 힘차게 달려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리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마지막이 있다. 사역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한다. 사역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사역은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이다.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짧은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무리

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칠나와 같은 권력을 갖고 그 권좌가 영원할 것처럼 휘두르는 사람도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인생이나 권력을 보면 그야말로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고 권력 무상이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집행 직전 황제 특사로 살아남았다. 그는 다시 얻은 인생의 기회를 값지게 살았다. 그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고, 통찰력이 있는 명작을 남겼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대문호가 되었다. 그가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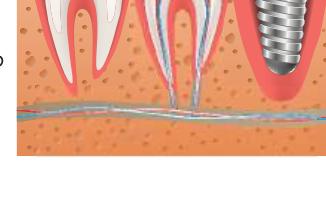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교만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탐욕은 권력과 소유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게 한다. 지혜는 돈과 권력의 한계를 알고 삶의 본질을 보게 하고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는 삶의 본질을 깨닫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터 이 원장

##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주역 미스터트롯3 TOP7이 LA를 강타한다!



춘길

손빈아  
-3善

남승민

김용빈

천록담  
-3美

최재명

추혁진

**TOP7**  
**미스터트롯3**

2025년 8월 24일(일)

2 PM / 6:30 PM (2회 공연)

월셔이벨극장 | WILSHIRE EBBELL THEATRE  
The Ebell of Los Angeles

743 S. Lucerne Blvd.,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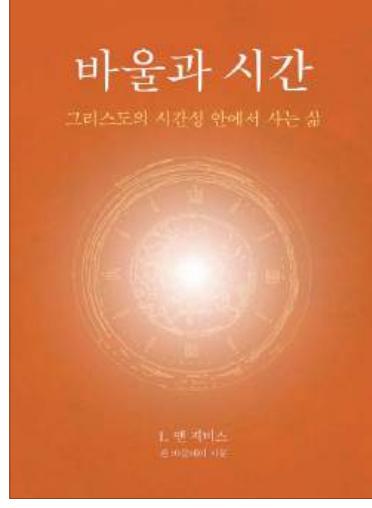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기념 미스터트롯3 TOP7 LA공연이 월셔이벨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임용빈, 손빈아, 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이상 TOP7 전원이 LA공연에 출연합니다. 임영웅을 잊는 차세대 트롯 황제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뜨겁고 진한 감동의 무대를 느껴보세요. 하나 더! 미스터트롯3 TOP7과 함께하는 멕시코크루즈 4박5일(8월 25~29일), 엘리트투어와 떠나세요. 문의 - 엘리트투어 (213)386-1818

티켓 예매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e-mail. ticket@chosundaily.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진리를 시간성 속에서 풀어낸 책

## ‘이미와 아직 사이’, 바울이 생각했던 ‘시간관’이 아니었다?



### 바울과 시간

L. 앤 저비스 | 김지호 역 |  
도서출판100 | 320쪽 |  
22,000원

바울의 시간관은 보통 두 시대의 중첩 또는 ‘이미와 아직’(already-not yet)으로 이해되어 왔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신자들은 악한 현시대와 새 시대가 중첩된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횡기적인 책에서 앤 저비스는 그것이 바울의 시간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비스는 바울 서신에 대한 성실한 주제를 바탕으로, 신자들은 두 ‘시대’의 중첩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만 산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참 놀랍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진리를 시간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자가 전개하고 싶어 하는 주제, 곧 신자는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대한 모티프를 이해하려면 ‘구원사적 관점에 본 바울의 시간 개념’과 ‘묵시론 관점에서 본 바울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바울 학파들의 반성 없는 습관에 도전하고 있다. 즉 ‘이미와 아직(already-not yet)’을 결합해 현재 신자들이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중첩’ 내지 ‘긴장’ 속에 존재한다는 식으로 바울의 종말론을 설명하는 일반적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아들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현재 시간을 신자들에게 열어주신다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 속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신자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 인간의 죄 성향, 육체적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으로 변형되고, 생명과 삶을 위해 변형되는 초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플라톤, 칼 바르트를 인용한다. 하지만 바울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원사적 관점과 묵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구원사적 관점이란 시간을 선형적이고 순차적이며 목적으로 보는 것이며, 묵시적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을 현재적 시간 속으로 침입하실 수 있고 또 침입하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본 바울의 시간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불트만의 <역사와 종말론>, N. T. 라이트의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 등에

서 다루고 있는 직선적 시간 개념,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이라는 시간의 중첩 개념을 나름의 이해력으로 통찰해내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과정의 일부로서 구속을 성취해 오셨고,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종말의 시간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저자는 묵시론 관점에서 본 바울의 시간 개념을 설명하면서, 알베르토 슈바이처의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 칼 바르트의 <로마서>와 <교회 교의학>, 에른스트 케제만의 <로마서>, <Primitive Christian Apocalyptic> 등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 개념을 분석한 결과, 바울의 두 시대라는 개념 속에는 근본적으로 묵시적 개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연속적 두 아이온에 대한 묵시적 도식은 현재 시간 속으로 침입했으며,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시간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실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현재 두 시대가 동시에 존재하며, 신자들은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시대를 개시했기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새 시대에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 옛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결론은 신자가 단순히 중첩된 시대에 살아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항상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난 시간성을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다.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곧 신자가 그리스도의 현재적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냄으로써 악한 현시대와 완전히 구별되는 시간성 속에 살아가며, 악한 현시대에서 해방돼 높



▲사도 바울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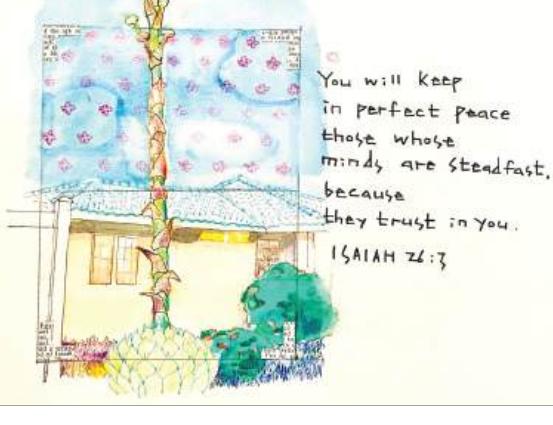
아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매개로 한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현재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가운데 살고, 현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현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에서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의 날/파루시아가 도래하기 전부터 현재적 삶으로 누릴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자의 승리로 치환할 수 있으며, 이미 그리스도께

이종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한 도록 지으시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로, 삼아니이다  
이사야 26:3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풍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전임 부목사 청빙**

시카고 근교 네이퍼빌에 위치한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는, 주를 향하여 젊고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품은 사역자로서, 예배찬양사역과 교회행정을 협력해서 도울 부교역자(Full-time)를 모시고자 합니다.

■ 자 격: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M.Div. 이상 신학훈련을 받으신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 미국에 합법적 체류자, 또는 한국 목회자도 지원 가능: 종교비자, 영주권 도와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 소개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접수마감: 6월 14일(토), 또는 교역자가 정해질 때까지

■ 이 메일: mutulan@hotmail.com

■ 문의전화: 교회 630-778-0101, 안창민목사 630-962-7904

■ 교회홈페이지 주소: www.ilovechurch.org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창민)

23W550 Hobson Rd. Naperville, IL 6054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개화기 평양 화단과 기독교 학교

## 선교사들 세운 기독교 학교, 일제 치하 조선을 깨우다

평양 지역 많은 신자 가정에서 예술가, 특히 서양화가 배출돼 한국인 문화적 감수성 접목도 침묵에 빠진 조선 흔들어 깨워

기독교 선교사들이 정착한 개화기 평양은 한양과 더불어 문화활동이 가장 적극적이던 지역이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악습인 반상(班常)의 구별을 없애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회균등 사상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음악·문학·미술 등 신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

이 시기 눈길을 끄는 것은 선교사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이다. 1906년 평양 지역에만 13개 학교 281명의 학생에서, 1907년 1년 만에 17개 학교 473명으로 성장했다. 선교사 엘머 케이블(Elmer M. Cable)은 이 현상을 가리켜 ‘교육혁명’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베어드 선교사(William M. Baird)가 설립한 숭실고보(숭실학당)와 제임스 허 선교사(William James Hall)가 설립한 광성고보(광성학교)를 들 수 있다. 평양고보가 관립이라면 두 학교는 미션스쿨이라는 점에서 견립 성격이 확연히 구별된다.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경·영어·물리·화학 등 서양 근대 교과목을 가르쳤다. 이는 당시 한국의 개화 또는 근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 학교에서

는 신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보급했다. 유능한 지도자뿐 아니라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구실을 한 셈이다.

평양은 서화예술의 전통이 오래 됐고, 근대기 개화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지역 중 하나로 초기 서양화 유학생들을 배출했다. 그 족매체 역할을 했던 것은 1925년 창립된 미술교습소 삽성회(朔星會)로, 서양화 김관호와 김찬영, 동양화 김윤보와 김광식이 강사로 나섰다. 삽성회는 만 2년 수업 기간 동양화부와 서양화부로 나눠 학생 20명과 30명씩을 모집했다.

그 결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조선 종독부 주최 ‘조선미술 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는 전국에 산재한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1927년 제6회 ‘조선미전’에 평양 박인철의 <풍경>, 장승엽의 <교회 가는 길>, 최세영의 <습작>이 서양화부에서 동시에 입선에 오른 것이다. 삽성회 창립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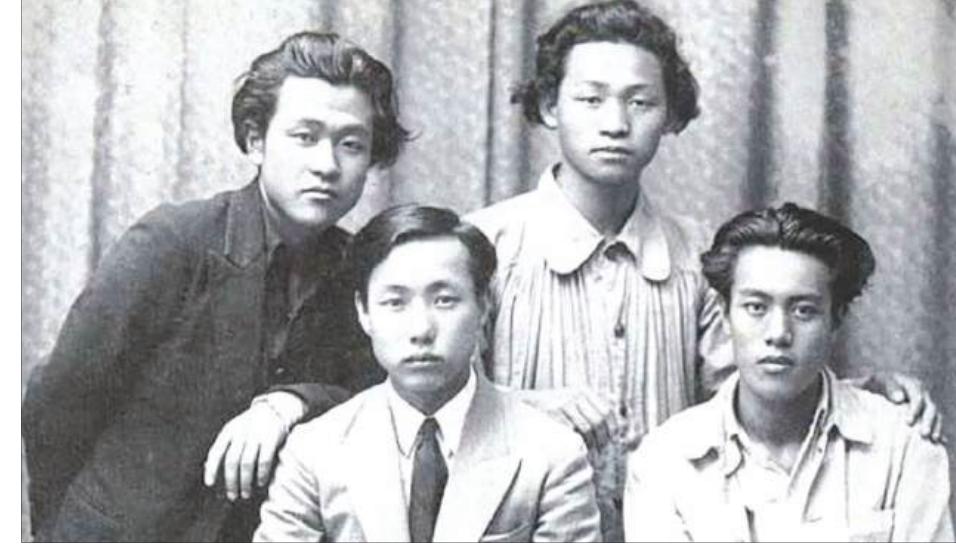
물론 숭실중학교 출신 권명덕은 한 해 앞선 1926년 제5회 조선미전과 제6회 조선미전에서 수채화 <풍경>과 유화 <자화상>으로 입선했다. 1930년대 평양은 한양 못지 않게 서양화가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는 평양에 신문화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서구적이랄 수 있는 서양화가 수백 년 누적된 동양화를 제치고 인기 있는 예술 분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이런 원인에 기인한다.

1932년 제11회 조선미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사람은 단 세 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이 평양의 최연해(광성고보)였다. 함께 특선을 받은 수상자는 이마동과 이인성 등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들이었다.

함께 입선한 평양 출신 화가로는 권명덕(숭실중학교), 박영선(평양고보), 현리호(숭실중학교)가 있다. 동아일보는 ‘평양의 자랑, 오월회 동인 4명이 전부 미전에 입선(1932. 5. 29일자)’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나중에 ‘오월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평양 화단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작가들 모임과 국내파들의 모임이었다. 전자는 윤중식(숭실고보), 문학수, 이중섭, 황염수,



평양 오월회 동인들. 오른쪽부터 현리호 · 최연해 · 박영선 · 권명덕(동아일보 1932. 5. 29일자). ⓒ 서성록 교수 제공

이효련, 김병기(광성고보) 등이며, 이들은 개별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평양 체신회관에서 단체전을 갖기도 했다. 이보다 응집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호회(珠壺會)’ 회원들

이었다. ‘주호’는 광성고보 2학년을 중퇴하고 독학하다 요절한 최지원의 아호로, 그는 제18회(1939) 조선미전에 목판화 ‘걸인과 꽃’을 응모해 입선하기도 했다. 당시 “선과 구상에 소박성있는 목판화(심형구, 제18회 조선미전인상기, 동아일보 1939. 6. 11일자)”라는 심사평을 받은 이 작품은 깡통을 든 소년이 지나가는 소녀를 응시하는 작품이다.

‘주호회’ 동인으로는 최영림·황유엽·변철환·홍건표·장기표·장리석·박수근 등이 있는데, 최영림·황유엽·장리석·변철환은 광성고보 미술부에서 함께 꿈을 키웠던 학우들이었다. 이들은 국민화가 박수근을 화우로 맞이했는데, 향토적인 분위기와 서민에 대한 관심 등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양구 출신의 박수근을 영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주호회는 1940년 결성 후 1944년까지 활동했으며, 모두 5회에 걸쳐 동인전을 열었다. 이들 역시 시차를 달리하며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당시 화가들의 동인전이 드물던 시절, ‘오월회’와 ‘주호회’ 주도로 평양 지역에 신문화를 보급하였다.

술집고보에서도 화가들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광성고보에서 미술가들이 많이 배출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평양에는 장로교회가 감리교보다 암도적으로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계열의 광성고보가 장로교 계열의 숭실고보보다 많은 미술가를 배출한 데는 장로교단이 교회 건립과 복음 전파에 주력한 반면 감리교단은 학교와 병원 건립, 그리고 문화를 통한 선교에 비중을 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김병기의 증언처럼 광성고보에는 주로 ‘부잣집’ 아이들이 진학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미술을 하려면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

해야 했는데, 일본산 물감을 구입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김병기가 광성고보에서 수학했으므로, 그의 말은 신빙성이 높은 편이다.

그 학생들은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신문화에 적극성을 띠었다. 광성고보 미술반원으로 활동했으며 나중에 일본대학 예술과를 나온 계삼정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각 학교마다 미술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매년 대규모 교내 전람회가 열릴 때면 평양 유지들이 와서 구경하는 등 성황을 이뤘지요. 그때 미술반 학생들이 평양 중심의 ‘서부학생미술전람회’에 출품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최 ‘전국학생미술전람회’에는 학교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입상도 하고 그랬지요(김복기, 월남작가들의 스승 월계(月桂) 계삼정, 2021. 4.”

광성고보에서는 황유엽·최재근·김승기·최영림·계명철·변철환·홍종명·김창렬·장종선 등이 배출됐다.

평양 많은 신자들의 가정에서 예술가들이 배출됐는데, 길선주 목사의 아들 길진섭(숭실중학교), 박종은 목사의 아들 박고석(숭실중학교),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김병기(광성고보), 김학수와 송혜수, 김원(숭실중학교) 등을 키워내면서 평양을 ‘개화의 요람(김복기)’으로 만들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전래된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민족 복음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 한글 보급, 현대식 교육 등 우리 생활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허다하다.

그 영향 중 지극히 작은 부분 중 하나가 ‘서양화’의 출현인데, 예술 분야의 등장이라는 단순한 측면 외에도 평양 화단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인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접목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깊은 침묵에 빠진 조선을 흔들어 깨운 것은 한반도를 뒤흔든 총성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었다.



제18회 조선미전에 입선한 최지원의 목판화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예하성도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

## 제74차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 엄하석 목사

###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분별하자 자유민주주의 지킬 대통령 선출 차별금지법 저지와 동성애 반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제74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9일(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약 1천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전쟁과 기근, 해 위험 등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 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레 다가온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 사회로 드린 개회예배에서 총

회장 김영준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너무 암울하고 답답한 시국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이번 총회 주제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로마서 12:2)’,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는다”며 “선후배 목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의 총회를 위한 기도와 사랑,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백영자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도미니요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도미니요 목사는 설교에서 “세계하나님의성회가 크고 놀라운 부흥성장을 이루는 데 조용목 목사님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축하하면서 이사야 43장 18-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내일(A Great Tomorrow)’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도미니요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벼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훌륭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축사는 아마노 히로마사 목사(일본 하나님의성회 이사장), 전기총 17개 광역지도 226개 시군구 연합회 대표 부산평화교회 임영문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좋은이웃교회 김윤석 목사 등이 전했다.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73차 총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30년 근속자 23명(이종원, 김상기, 이기성, 김종연, 임웅재, 김기인, 이경진, 박승호, 이득상, 임영신, 장호순, 윤광진, 김경준, 신명설, 박용호, 정영진, 악희철, 김성수, 김영웅, 이진우, 정석현, 정세창, 배영철 목사)에게 근속패를 증정했다. 전국사모연합회를 섭겨온 사모회장 이을순 사모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헌금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헌금송, 서기 장동근 목사의 광고,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하성

예배가 마무리됐다.

2부 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들과 감사, 예산 심의 등의 회무처리 후 임원 선출에서는 헌법 제84조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엄하석 목사, 부총회장에 이인호 목사, 총무에 오세준 목사, 서기에 문찬우 목사, 재무에 최정식 목사, 회계에 백영자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총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는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기도, 협력을 당부했다.

엄하석 목사 인도로 계속된 총회에서는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

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

이번 제74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 반대, WCC·WEA 종교다원주의 반대, 특히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미 교육부, 기독교 대학에 부과한 3,770만 달러 벌금 철회

미국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그랜드 캐년 대학(GCU)에 부과했던 3,770만 달러의 벌금을 철회했다고, 이 대학이 5월 16일(금)에 발표했다.

GCU 뉴스는 교육부 청문 및 항소국이 발행한 공동 기각 명령에서 교육부는 어떠한 조사 결과, 벌금, 책임 또는 처벌도 없이 사건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1949년 남침례교협회에 의해 설립된 GCU는 미국 최대 규모의 기독교 대학이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육부는 2023년 10월 벌금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박사 과정 비용에 대해 수천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며 3,7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교육부는 학교가 웹사이트

에 박사 과정 비용을 40,000달러에서 49,000달러로 광고하여 허위 정보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비용으로 학업을 마친 졸업생은 2% 미만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필수 “연장 과정”으로 인해 최종 비용에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관들은 GCU가 추가 비용에 대해 세세하게 공개한 내용을 “비용에 대한 상당한 허위 진술”에 대한 부적절한 고지로 일축했다.

GCU 총장 브라이언 뮐러는 이번 결정에 놀라지 않았으며 “우리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오도했다는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CP와의 인터뷰에서 GCU 총장 뮐러(Brian Mueller)는 교육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교육부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이 연방 정부가 기독교 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뮐러는 기독교 대학인 GCU와 리버티 대학에 부과된 벌금이 펜실베니아 주립대 미식축구팀 수비 코치 제리 샌더스키의 성추행을 보고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에 부과된 벌금 240만 달러, 30년간 여자 체조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전 미국 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미시간 주립 대학에 부과된 벌금 450만에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벌금 처분 이후, GCU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재향군인부로부터 재정 감사를 받았으며, 애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은 3월에 FTC가 GCU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FTC가 GCU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원칙 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는 작년에 교육부 산하 집

행국이 기독교 학교에 가한 조치를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기독교 대학의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법무부 시행국(Office of Enforcement)이 부과하는 벌금의 약 70%를 차지했다.

기독교 학교에 부과된 평균 벌금은 81만 5천 달러였으며, 이는 캠퍼스 범죄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한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 부과된 22만 8천 571달러보다 높다.

교육부 대변인 엘런 키스트는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와 달리, 우리는 종교적 소속을 이유로 대학을 박해하고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학과 차원의 단속은 정치적 편견이 아닌 학생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주디 한 기자



GCU 총장 뮐러(Brian Mueller). ©GCU.edu

### 문선영의 머니토크

##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였는데,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들어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생활이 어렵고 이제서야 은퇴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남편이 삼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 날 더 늦어지지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 저것 다하고 나니까 정말 많지도 않은 딱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셜을 받기 시작했는데 데들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모기지 \$1,800를 내면 \$1,900 정도가 되니까 뭐 아껴서 살면 우리들이 이 못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를 하면 1,800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팬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천불씩만 끼내 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집을 넘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하고 나니나

까도 아 생활비 계산도 해야 하며, 러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선생

님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이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고 자세한 개별 상담을 꼭 해드려겠습니다. 저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은퇴를 하시면서 금액적으로 충분한 혹은 넘어야하는 은퇴 인컴을 만들기 위해 해서는 첫째 지출을 줄이거나 둘째 인컴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데 만약 인컴을 늘리는 방법으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은퇴 인컴이 더 나오면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의 모기지 금액은 한달에 1,800불이고, 이자율이 2.5%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5% 이자를 안내기 위해 서물론 그 남은 모기지 전체 27만불을 한달에 다 깎을 수도 있지만, 만약 27만불을 가지고 7% 이상의 이자를 받아쓰면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팔고 남으신 돈 30만불을 만약 어뉴이티에 넣고 고정 인컴으로 받아 쓰시게 된다면 매년 \$2,5857불이 100세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만불을 넣고 평생 찾아 쓰는 돈은 827,412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인컴은 소셜인컴 3750불에 어뉴이티에서 나오는 \$2,154,75가 되어서 한달 인컴은 5,904,75달러가 되고, 모기지 1,800불을 매달 낸다고 해도 인컴이 오히려 4104,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불 가까이 인컴에서 모기지를 내도 선생님들의 은퇴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쓰게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깎아 나간다 해도 더 큰 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고정 인컴 어뉴이티는 선생님께서 통닭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달에 꼬박꼬박 2,154,75센트가 들어간 30만불이라는 원금을 찾아쓰기 전에는 자동으로 두 배인 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도 은퇴플랜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 남는 돈으로 인컴을 더 놀릴 수 있게 되겠죠. 자다음은 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은 더 깊어 버리고 싶고, 지출은 줄여야겠다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시지만, 정말 이자 세를 계산하고 통닭 고고케이 상황에서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해보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하는 방법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선생님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상담을 통해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알찬 노후를 위한 실버 전략 세미나

### “은퇴 부동산과 은퇴 어뉴이티”

5/28 (수), 5:30PM

3435 WILSHIRE BLVD., 14층, LA

- 부동산처분시 주의사항
- 시니어 타운 구매전략
- 은퇴 플랜과 풍선판 커어
- 어뉴이티를 통한 평생 이점



자녀가 한정 되어있으니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NEOZIPS 626-827-9599

SYMONMONEYTALK@GMAIL.COM

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시지만, 정말 이자

을 꼭 저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센을 계산하고 통닭 고고케이 상황에서

오프 하여 지출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하는 방법

2.5% 모기지 돈 이자보다 훨씬 많은 7%

정도의 이자를 받아 은퇴인컴을 더 높이

고통닭커어까지도 준비할 것인지, 선생

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선

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 주안예교회 창립 12<sup>TH</sup> 주년

예벤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12년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불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 창립 12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장 1절)



FR/5.30.2025

7:45pm

SA/5.31.2025

6:00am&8:00am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SU/6.01.2025

8:00am&11:00am



김일권 선교사

OM 한인국제선교회 대표  
한국 OM 선교훈련원 원장  
미주 장신대 선교학 교수  
중동선교사 (17년)

이충환 담임목사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818) 363-5887  
[www.icccla.org](http://www.icccla.org)

